

<서평>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Ji-Youn Cho, UBS Monograph Series, No. 11;  
Oxford: Marston Books Service, 2009)

양재훈\*

1. 들어가는 말

노아의 홍수 이후 조상이 경험했던 비극의 트라우마를 씻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결하고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것은 각기 다른 언어의 생성과 그로 인한 소통부재라는 황당한 결과만을 낳았고, 이후로 인류들은 어리석은 짓을 한 이들을 두고두고 원망하면서 그 업보를 아직까지도 등에 지고 다니고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벌어졌던 기적적인 의사소통은 그때뿐이었고, 결국 바울은 교회 안에서 소통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니 방언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아직까지도 어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각기 언어가 다르다는 현실은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번역이나 통역이라는 헤르메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옛 속담처럼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말 뚜쟁이 헤르메스가 어떻게 말을 전달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기도 하고 도리어 빛을 발하기도 한다. 더구나 한 시간과 공간 문화권의 언어가 전혀 이질적인 시간과 공간 문화권의 언어로 옮겨질 때, 그 변질의 위험은 더욱 높아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있는 출발점과 도착점,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수용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잘 메워서 양쪽이 이심전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거나 그 근처라도 갈 수 있게 할 것인지는 많은 번역자들이 늘 고민하는 바이다.

이 책 역시 이러한 고민 가운데 나온 결과물이다. 이 책의 관심은 전혀 다른 시

---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어인 고전어를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그 바탕에 있다. 특히 이 책은 우리나라 성서 번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존대법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한 책이다. 존대법이라는 것은 원천 본문(source text) 신약 성서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없지만 번역의 결과가 되는(target language) 한국어에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성서 번역에 있어서 이 존대법의 문제는 그동안 별다른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 성서는 한국어 답지 않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간파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다.

## 2. 개요

### 2.1. 서론

이 책은 서론과 본론 6장, 그리고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저자는 존대법을 사용하는 언어권으로 성서를 번역할 때 적절한 존대법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을 때 번역의 과정에서 원천 본문의 의미나 효과가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존대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로 성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그동안 이러한 점이 깊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대법으로 번역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나 기준들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저자는 먼저 존대법이라는 언어 현상을 정의내리면서 이것이 언어적, 문법적 차원의 영역임을 밝힌다. 몇몇 인도 유럽어(Indo-European languages)에서는 T-V 양식과 같이 2인칭 단수 대명사의 높임과 낮춤을 통해서 대화 상대와 자신 사이의 높낮이나 친밀도, 사적-공식적 관계를 표현하고 활용한다. 이에 반해 한국어를 포함한 적잖은 아시아권의 언어들이 이보다 복잡한 높낮이 관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저자는 존대법 번역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존대법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문제가 단순히 언어적인 차원으로 끝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존대법의 문제에는 공손법이라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공손법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과 오가는 말이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받

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존대법이 언어적 문법적 차원의 것이라면 공손법은 사회 문화적인 것이고 따라서 가변적이고 상황적인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두 가지 모두 한국어 성서를 번역하는 기준과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존대법과 공손법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답을 질문한다. 그 주된 질문들은 존대법을 사용하지 않는 헬라어 신약 성서가 존대법을 사용하는 언어권에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원천 본문의 공손의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상 언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등 다양한 번역 이론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신학적 해석학적 차원의 것들이 존대법 번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존대법 번역을 위한 보편적인 틀과 기준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이다.

## 2.2. 제 1장

1장 도입 부분에서는 한국어의 복잡한 존대법 시스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우선 한국어의 존대법과 관련한 2인칭 대명사와 동사의 어미를 다룬다. 저자는 각각의 경우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조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설명한다. 2인칭 대명사의 경우, 1800년대 말 존 로스로부터 시작하여, 언더우드, 1930년대의 최현배, 그리고 1960년대의 이희승에 이르기까지 2인칭 대명사들이 그 높임과 낮춤에 따라 어떻게 각각 분류되었는지 점검한다. 저자는 이어서 “너, 자네, 그대, 당신, 여러분” 등의 2인칭 대명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것들을 크게 존대(deferential)와 비존대(non-deferential)로 나누고, 격식체(formal)와 비격식체(informal)로 함께 분류한다. 그리하여 존대-격식체로는 “당신, 그대, 여러분”을, 존대-비격식체로는 “당신”을, 비존대-격식체로는 “당신, 그대, 너”를, 비존대-비격식체로는 “그대, 자네, 너”를 제안한다.

이어서 저자는 존대법 동사의 어미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다. 먼저 저자는 이 동사 어미가 로스와 매킨타이어(상1, 중1, 하1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언더우드(상3, 중2, 하2 분류), 게일(최상 P, 존대 Y, 등급간 존대 O, 존대 없는 E, 낮춤 N, 비하 T), 최현배(최상 P, 상 O, 낮춤 N, 가장 낮춤 T, 비하 E), 그리고 1960년대 마틴(S. Martin)과 이희승, 1970년대 장(S.J. Chang)과 이(M.S. Lee), 박(Y.S. Park), 그리고 1980년대 손(H.M. Sohn)을 거쳐서 어떻게 분류되어 왔는지 설명한다. 저

자는 여기에서 현대 한국어 존대법이 단순히 높낮이 위계에서 벗어나서, 대화 상황을 고려하는 보다 복잡한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존대법 동사의 어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저자는 존대법 동사의 어미를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이것들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분류되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존대와 비존대, 일반적, 제한적 용법 등으로 나뉜다. “-하니다”에 해당하는 P는 존대-격식체로 사용되며, “~하(시)오”에 해당하는 O는 “~하게”라는 N 형식의 격식체로, 비존대-격식체로, “~하다”에 해당하는 T는 비존대-격식체로 사용된다. “~해요”에 해당하는 Y는 존대-비격식체로, “~하네”에 해당하는 N은 제한적 비존대-비격식체로, 그리고 “~해, 했어”에 해당하는 E는 일반적 비존대-비격식체로 활용된다.

존대법과 관련한 2인칭 대명사와 2인칭 동사 어미의 분류와 활용을 역사적으로, 또한 용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조사한 후에 저자는 한국어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서로 호응을 이루어야만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 각각의 경우를 점검한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로스와 최현배 등과 같은 이들이 이러한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역사적인 조사를 한 후에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호응을 이루어야 하는지 분석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존대-격식체 2인칭 대명사(여러분, 당신, 그대)는 P와, 존대-비격식체 2인칭 대명사(당신)는 Y와, 비존대-격식체 2인칭 대명사는 O(당신, 그대)나 T(너)와 더불어서, 비존대-비격식체 2인칭 대명사는 N(자네, 그대)과 E(너)와 더불어서 호응을 이루어야만 적절한 표현이 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존대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이, 상대적 지위 관계, 성별, 친밀도, 상황의 공식-비공식성 등 다섯 가지의 대화자들 사이의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말한다. 저자는 한국어에서 존대법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화자들 간에 연령 차이를 꼽는다. 또한 상급자와 하급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의 고하 관계가 존대법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이와 함께 고려해서 존대법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한 성별이 다를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는 존대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예외의 경우는 친밀도라고 말한다. 친밀도와 관련하여, 한국어는 대화 상대끼리 얼마나 개인적인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존대법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연령, 지위, 성별에 따른 규칙의 예외가 된다. 마지막으로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공식-비공식 석상이냐에 따라 존대법 사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비존대어를 쓰는 친구 사이라도 공식석상에서는 서로 존대어를 쓰게 된다. 따라서 이 모든 요소들은 존대법 결정 요인이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예외 규정이 되기도 한다.

### 2.3. 2장

2장에서 저자는 공손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존대법 활용을 위해서 공손에 대한 카테고리들을 제안한다. 먼저 저자는 공손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공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황적이고 문화적이며 관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저자는 네 그룹의 학자들의 이론들을 소개한다. 첫째, 브라운(R. Brown)과 길만(A. Gilman)은 공손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 수직적인 위계적 순서 매김의 기준으로 공손을 범주화한다. 그들은 힘과 연대감(power and solidarity)의 기준으로 사회적 계층, 직업, 정신력에 있어서의 우열, 부, 연령, 성별 등으로 힘을 분류하고 친밀도나 공식적-비공식적 관계 등으로 연대감을 분류한다.

둘째로 저자는 레이코프(R. T. Lakoff)의 세 가지 법칙을 소개한다. 그녀는 공손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법칙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각각 상대방에게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것 즉,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에 대화에 개입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친절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저자는 셋째로 브라운(P. Brown)과 레비슨(S. C. Levinson)의 공손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이들은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ivities, FTA)를 바탕으로 공손에 대한 판단과 공손을 위한 전략들을 제시한다. 그들은 공손의 정도를 파악하는 요소들로서 대화자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D)와 둘 사이의 힘의 관계(P), 그리고 특정 문화권에서 계급(R) 등을 제시한다. 이들은 공손을 위한 전략을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제안하는데,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태도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등의 긍정적 공손, 다소 돌려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는 등의 부정적 공손, 암시나 수사적 표현 등 모호한 의사 표현 등을 사용하는 오프 레코드(Off Record), 마지막으로 화자가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체면 위협 행위를 피하는 것 등이다. 그들은 공손의 형태로서 나를 낮추는 것과 나를 높이는 것 등 두 가지를 제안한다.

넷째로 저자는 리치(G. N. Leecn)의 공손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다. 리치의 이론은 대화 상대간의 감정을 기준으로 공손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를 분류한다. 그는 이 원리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타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둘째, 나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셋째, 남을 깎아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넷째, 나를 높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다섯째,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반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손에 대한 이론들을 소개한 이후에 저자는 공손의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존대법을 선택할 기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저자는 다섯 가지로 공손 판단의 요소들을 분류한다. 첫째, 대화의 상황이다. 이것은 대화가 오가는 상황이 공식적이냐 비공식적 상황이나에 따라 존대법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밀한 사이라도 공식적인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에는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연령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인지, 가부장적 사회인지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둘째로 저자는 대화 상대 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요소를 지적한다. 여기에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성별, 친밀도 등이 있다. 대화자들은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이러한 요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머지 네 가지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손의 정도를 판단하고 존대법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셋째로 저자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문화적 기대들을 손꼽는다. 저자는 대부분의 전통 문화는 사회 중심적이고,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보다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판단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공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 특정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달리 해석이 된다. 저자는 공손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과 상대주의적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넷째로 저자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갖게 되는 전제들의 사회적 요소들을 꼽는다. 화자는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나름대로 의도를 갖게 된다. 이것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만드는 일종의 관계 형성의 문제이다. 화자의 관계 설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저자는 앞서 언급한 바, 브라운과 레비슨이 제안한 거리감과(D) 힘의 관계(P), 그리고 계급(R) 등 세 가지를 그 요소들로 제안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화자가 청자에 대해 어떠한 관계 설정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섯 번째로, 저자는 비언어적 요소 즉, 몸짓이나 말투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공손 판단의 기준으로 제안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넌 때에 어떤 몸짓을 하는지, 말의 속도나 억양, 말소리의 크기, 침묵, 웃음, 눈 맞춤 등과 같은 것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공손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킨다든지 눈 맞춤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화권에서는 공손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저자는 존대법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공손법이 작용하는 모델을 종합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화자는 청자를 대면할 때 둘 사이의 관계 즉, 연

령, 성별, 사회적 지위, 친밀도 등과 같은 것을 보고, 또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공적인 자리나 아니면 사적인 자리나 등), 그리고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예를 들면, 군대라는 문화권에서는 연령보다는 계급이 우선한다든지, 모녀간 친밀도가 연령 위계질서보다 우선할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문화와 그 반대인 조선 시대의 문화 등)을 관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는 상대방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이나 힘의 관계, 서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무게 등을 인지한다(관찰이 아닌 인식의 영역). 여기에 상대방에 대한 의도나 입장 등이 덧붙여져서 청자에게 표현을 한다. 이 표현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공손의 정도(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느냐, 어떤 말투로 하느냐, 어떤 몸짓을 하느냐 등)가 반영되며 이것은 관찰 가능한 영역이다.

공손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황적,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존대법은 문법적 언어적 차원의 것이다. 따라서 공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존대법은 잘못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활용이 될 수 있음을 저자는 지적하면서, 존대법을 사용하여 번역을 할 때 공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당한 공손 판단 기준이나 공손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보편적인 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 2.4. 3장

세 번째 장에서 저자는 번역 이론들을 소개하고 비판한다. 저자는 문자적 번역(직역)과 역동적 동등성 번역(dynamic equivalence),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 문학적 기능 동등성(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접근법들이 존대법 번역을 위한 번역 접근법으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하고 스키포스(skopos) 이론을 수용한다. 문자적 번역은 오래된 번역 방법으로서 원천 언어와 대상 언어 사이에 문장 형식이나 단어 등의 형식적 일치 추구를 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언어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언어 구조나 문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원천 언어와 대상 언어가 반드시 형식적으로 일대일 짝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헬라이어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존대법의 예가 바로 그러하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문자적 번역을 한다면 그 의미는 왜곡되기 때문에 존대법 번역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

둘째로 저자는 나이다와 태버의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것은 번역을 할 때 의미와 스타일에 있어서 “원천 언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대상 언어로(closest and natural equivalent of the

source language message)” 번역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번역 이론에서는 분석과 전환과 재구성의 번역 과정을 말한다. 분석(analysis)은 원천 언어 메시지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문법적(grammatical)이고 의미론적(and semantic) 차원을 다룬다. 그러나 저자는 이 단계에서 대화자들 사이의 사회적 요인이나 사회적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존대법 번역의 틀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둘째 단계인 전환(transfer)은 이해된 원천 언어를 대상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셋째 단계는 메시지를 재구성(restructuring)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입장(연령, 성별, 직업, 교육 수준, 사회적 계층, 종교 등)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대상 언어의 존대법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나이다와 태버의 모델은 직역 모델과 달리 원천 언어와 수용자의 언어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번역자에 대해 더 비중을 두고, 번역자가 번역(해석)한 메시지가 원천 메시지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존대법 번역에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첫째로, 이 접근법에서 제안하는 번역의 요소들이 존대법 번역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둘째로, 저자는 최종 수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번역자가 혼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로, 저자는 이 접근법이 원천 본문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존대법이 없는 원천 본문에서 존대법이 있는 대상 본문으로 번역하는 존대법 번역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로 저자는 드 바와 나이다가 제시한 기능 동등성 접근법을 소개한다.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전체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천 본문과 대상 본문을 언어학적, 수사학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드 바와 나이다는 원천 언어와 수용자 언어가 언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접근법의 번역자는 그 간격을 최소화하는 일을 한다. 저자는 이러한 점에서 존대법 번역에 있어서 이 접근법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 역시 존대법 번역의 적절한 틀을 세우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말한다.

넷째로 저자는 문학적 기능 동등성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 접근법은 청중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가치, 경험이나 견해 등이 메시지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한다. 저자는 이 방법이 담화, 장르 중심적 견해를 강조함으로써 텍스트를 언어학적 문학적 통합체로 바라보며, 본문의 일관성, 화용론적 측면에 있어서 존대법 번역과 연결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번역의 문학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식적 목적을 가진 성경 번역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스크포스 이론을 소개한다. 이 접근법은 원천 본문보다는 대상 본문, 번역자의 목적을 더 강조하는 방법론이다. 특히 성경 번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할 때는 원천과 대상 본문 모두를 존중하는 접근을 한다. 이전의 동등성의 원리들이 원천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면 이것은 독자의 입장이 존중되는 방법론이다. 저자는 존대법 번역의 문제가 대상 언어(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스크포스 이론을 적절한 번역 이론으로 수용하면서, 독자, 번역위원회, 번역자, 원천 본문, 그리고 대상 본문을 존대법 번역을 위한 요소들로 제안한다.

이와 같이 번역 이론들을 소개 비판한 후에 저자는 존대법 번역을 위한 위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제시한다. 첫째, 존대법 번역을 할 때는 독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번역의 결과가 어떤 상황의(교회와 같은 공공장소, 가정집 등) 대상들에게(세대, 직업, 성별 등) 수용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번역위원회의 역할이다. 번역위원회는 번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번역자들은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존대법 번역에 있어서도 수용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요소인 번역자는 원천 본문의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수용자의 입장도 인식하여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절히 반영되도록 번역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로 저자는 존대법 번역의 요소로 원천 본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성서에는 존대법이 없으므로 번역자는 화용론적 분석과 성서학적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존대법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원천 본문의 의미와 의도를 적절히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대상 본문의 독자층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존대법 번역 등 번역이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 2.5. 4장

네 번째 장과 다섯 번째 장에서 저자는 앞서 세운 존대법 번역을 위한 틀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로 예수의 산헤드린 재판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마가복음 14:58-65를 다룬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 성경 본문이 과거 한국 성서 번역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한다. 먼저 로스의 『예수성교전서』(1887년)에서 이 본문을 살펴는데, 저자에 따르면 당시에는 존대법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로스 자신이 존대법에 대한 한국어의 특징을 인식하긴 했지만 『예수성교전서』에서는 대화자의 관계와 상관없

이 낮춤말로 표현하여 다양한 존대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둘째로 저자는 1885년 이수정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다룬다. 로스가 무식한 평민들을 독자층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이수정의 독자는 중국어에 친숙한 지식인이었다. 로스와 마찬가지로 이수정 역시 대화자들이 낮춤말로 말하도록 번역했고 띄어쓰기나 구두법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수정의 마가복음은 고어체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스타일은 후에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셋째로 저자는 1911년 『성경전서』를 점검한다. 이것은 그 독자층을 모든 한국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문체는 단순하지만 학자들도 호감을 가질 만큼 수려하다. 이전 번역과는 달리 이 번역본은 띄어쓰기가 되어있고 현대 국문법을 적용하지만 여전히 구두점이 없으며, 19세기의 문학과 구조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용 성경 스타일의 전형이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존대법과 관련하여 마가복음 산헤드린 본문에서 이 번역이 일부 존대법을 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직역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존대법이 표현되지 않았고 그 효과와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평한다.

넷째로 저자는 1938, 1952, 1961년도의 『개역(한글판)』과 1998년의 『개역개정판』을 다룬다. 1938년 『성경 개역』이 1952년과 1961년 『개역한글판』에서 맞춤법에 맞추어서 개정되었으나 구두점이 없다. 1998년 『개역개정판』에도 구두점이 없으나 『개역한글판』에서 존대법 호응이 맞지 않는 몇몇 본문(예, 행 16:30 이하)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헤드린 본문에서는 다양한 존대법이 적용되었다기 보다는 일관되게 하나의 낮춤말로 번역되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낮춤말로 일관하는 이 번역본들은 고어체가 경전의 권위를 높인다는 한국 독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존대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문법적으로나 문체적으로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번역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1967년에 출판된 『신약전서 새번역』은 이전 번역과 달리 젊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어체 표현을 활용하고 현대적 문체로 바꾸었다. 존대법 활용에 있어서도 대화자들 사이의 관계나 의도 등을 파악하여 다양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동사 어미도 그에 따라 다변화 시키는 등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말은 여전히 낮춤말로 과거의 틀을 유지하여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1977년에 만들어지고 1999년에 개정된 『공동번역(개정판)』은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을 원칙으로 번역된 것으로서, 이전 번역본들에 비해 존대법 활용에 있어서 진일보하였다. 2인칭 대명사라든지 어미 활용에서도 인물들 사이의 관계나 의도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대제사장의 산헤드린에 대

한 화법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존대법을 활용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1993과 2001년에 개정되어 나온 『표준새번역』과 『새번역』을 다룬다. 이 번역은 10-20대 독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예배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고어체를 버리고 현대적 어법으로 번역하였다. 산헤드린 재판 장면의 존대법 활용에 있어서도 이 번역본은 “너”라는 대명사를 없앴고, 다양한 존대법을 활용하며, 예수의 화법도 보다 유연성 있게 변화시켰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자는 한국어 성경의 번역은 그 대상에 있어서 평민과 선교사들에서 지식층을 거쳐, 모든 한국인들, 비기독교인과 30세 이하의 사람들, 천주교인과 개신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10-20대의 청년들로 변화되어 차차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한편, 위원회는 조직이 되어 가이드를 제시하지만 실질적으로 번역자들이 번역의 방식들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또한 1967년의 『신약전서 새번역』이 기존의 번역 스타일을 벗어나 획기적인 변모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에 나오는 번역본들이 존대법과 현대적 문체에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현장은 고어체의 옛날 스타일을 선호하며, 따라서 다양한 존대어로 표현하는 존대법 번역 시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 2.6. 5장

5장에서 저자는 처음 세 개의 장에서 다루었던 존대법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산헤드린 재판 장면에서 각 등장인물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존대법을 사용해서 번역해야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자신의 번역을 나름대로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대화 분석에 앞서 먼저 이 재판 상황이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서 재판의 합법성을 말하면서 산헤드린 재판이 공식적인 재판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대화의 상황을 공식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시작으로 저자는 각 화자들의 대화를 분석한다. 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저자는 먼저 화자들의 사회적 관계, 문화적 기대감, 사회적 변이 요소와 의도 등을 분석하고, 공손의 정도를 점검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각 대화 상황에서 화자들이 어떠한 존대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첫째, 저자는 증인들과 산헤드린의 대화를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산헤드린은 고위층이었고, 증인들은 불확실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일 것이라고 제시한다. 증언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서는 산헤드린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을

모두 의식했기에 증인들을 끌어들이었다고 말한다. 증인들은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가졌고, 스스로 산헤드린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지각하고 있으며, 상황이 공식적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증인들의 어투는 공손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어투는 존대-격식체인 “-니니다” 체로 번역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둘째로, 증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다. 예수께서 당시에 성전에 대한 말을 하던 상황은(증인들의 증언이지 실제 그랬는지는 모른다) 군중들 앞에서 공격적인 상황이고, 예수의 말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묵시론적 종말론적으로 이해했으며, 이와 동시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이 건방진 거짓 예언자/메시아의 말이라고 인식했다. 청중들에 대한 예수의 공손 정도는 두 가지로 갈리는데, 악의적 태도를 가진 청중들은 예수의 어투를 악하고 거짓된 선지자의 어투로 인식했을 것이고, 독자들은 참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는 어투로 인식할 것이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증인들의 인용에서 예수의 말은 일반적 비존대-격식체 “-다”체가 적절하며, 존대-격식체 “-니니다” 체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셋째로, 대제사장이 예수께 던지는 첫째 심문 장면이다. 대제사장은 절대적 위치에 있고 예수는 사형 선고를 앞둔 피고의 입장이다. 이것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감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고,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행동으로서 규칙에 어긋나는 모습이다. 반면에 예수의 침묵은 예수의 무죄와 더불어 그의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준다. 그의 침묵은 대제사장에게 불손한 것으로 비쳐진다. 저자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2인칭대명사와 동사 어미의 호응을 하나씩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것으로서 제한적 비존대-격식체인 “당신/그대 + -오” 형식을 제안한다.

넷째로 대제사장이 예수께 던지는 둘째 질문을 저자는 분석한다. 대제사장과 예수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이전과 동일하다. 이 대화의 문화적 기대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쏠려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은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로 비쳐진다. 대제사장은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우월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며 따라서 거리감도 크게 두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제사장의 경멸적 모욕적 위압적 태도와 더불어 공식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비존대-격식체인 “당신/그대 + -오” 형식이 적절하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다섯째로 대제사장에게 던지는 예수의 대답 부분을 저자는 다룬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예수가 대제사장보다 아래에 처하지만 문화적 기대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밝히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예수 사이에는 적대감의 긴장이 있다. 따라서 예수의 발언은 공손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며, 둘의 관계는 공식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존대법 번역을 할 때 저자는 현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너+다” 형식을 반대하고 예수의 메시아적 권위, 공식적 상황, 적대감, 독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여러분+ㅂ니다” 형식이나 “그대들/당신들+오” 형식을 제안한다. 전자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들지만, 예수의 권위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고어체의 어감을 지울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독자의 상황에서는 후자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여섯째로 대제사장이 동료 산헤드린에게 던지는 대화이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산헤드린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할 정도로(옷을 찢는 몸짓은 그들에게 충분히 호소력이 있다) 그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이 상황은 판결이 내려지는 공식적인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저자는 너무 고압적이고 고어체 방식인 제한적 비존대-격식체인 “-오” 형식 대신에 “여러분+ㅂ니다” 체가 가장 적절하며, 2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는 번역도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산헤드린 구성원 일부가 예수를 조롱하는 대사를 다룬다. 이 장면은 이들이 예수보다 힘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며, 침 뱉기고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행위는 배척과 능멸이라는 상징적인 몸짓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미루어 볼 때 저자는 일반적 비존대어-격식체인 “-다” 체를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제안한다.

## 2.7. 결론과 부록

이와 같이 본론을 다 다룬 이후에 저자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요약한다. 결론이 끝난 이후에는 주요한 전문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해설하는 용어 해설 부분을 첨가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스크로프스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자가 앞서 밝혔듯이 독자라든지 번역 위원회, 번역자, 원천 본문 등을 그 주요한 요소들로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저자는 부록 부분에서 이 책 4장에서 다루었던 로스의 번역본으로부터 시작하여 2001년 『새번역』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어 성서 번역본들의 독자, 번역 위원회, 번역자, 원천 본문

에 대하여 각각 정보를 제공해준다.

### 3. 논의와 제언

이 책은 성서 번역에 있어서 사실상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한 대접을 받아왔던 존대법 번역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책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가 매우 좁은 연령의 간격을 두고 비약하다시피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관심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고어체의 성서를 고집하고 있고, 저자도 지적하듯이 그렇게 해야 성서의 권위가 더 느껴지고 그만큼 은혜도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권위가 떨어지고 은혜도 안 되는 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어려운 말일수록 괜히 거룩하고 고상하여 권위와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작 중요한 바, 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시대에 걸맞지 않는 번역은 시대에 맞춰 함께 옷을 갈아입혀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 책은 그러한 면에서 좋은 고민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구성면에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단을 잘 쌓고 있다. 저자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잘 다루고 있는데, 특히 한국어 존대법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분석은 매우 세세하다. 언어 현상이라는 매우 일상적인 것이기에 깊은 생각이나 세밀한 관찰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저자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흘려버리는 것이 없도록 노력한 흔적이 돋보인다. 5장에서 실제로 마가복음 본문을 사례로 분석할 때도 자신이 제시한 틀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들을 하나씩 모두 살펴보는 세심함이 다른 이들의 반박의 여지를 좁혀놓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들어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약간의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1장에서 역사적 흐름을 조사하면서 최현배에 앞서 주시경이 다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영문으로 된 글이 출판될 경우 한국 명칭이 영문으로 표기되는 상황에서 저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이 책을 빌어서 언급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인명을 언급할 때 성만 표기하고 이름은 약어로 하는데(예를 들어 최현배의 경우 H.B. Choi, 이희승은 H.S. Lee), 한국인명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반드시 성명을 온전하게 표기해야 한다(Hyun-Bae Choi 등

과 같이). 우리나라 성명의 특성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에서 손, 장, 이, 박 등과 같이 서평자가 불가피하게 언급한 것처럼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평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저자가 이 책에서 제기한 성서 번역에 있어서의 존대법 문제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책이 별생각 없이 구습에 따라서 존대법을 신경 쓰지 않고 번역을 하던 기존의 번역 방식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성서 번역이 진일보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투고 일자: 2010. 8. 21, 심사 일자: 2010. 10. 5, 게재 확정 일자: 2010. 10. 5)

<주요어>(Keywords)

번역의 시학, 관련성 이론, 나이다, 내용 동등성, 번역 기술들.  
poetics of translation, relevance theory, Nida, dynamic equivalence, techniques of translation.

<Abstract>

**Book Review-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Ji-Youn Cho, UBS Monograph Series, No. 11;  
Oxford: Marston Books Service, 2009)

Prof. Jayhoon Yang  
(Hyupsung University)

The act of translation is not a simple word exchange process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but quite a complicated hermeneutic work which lots of cultural, ideological, linguistic theoretical and pragmatic elements are involved. This book present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gives an insight of this question to the reader. It deals with the question of addressee honorifics (AH) in Bible translation; how do we translate the Greek Bible that has no AH into another language where AH play quite an important role. It aims at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to solve this problem in Bible translation.

This monograph consists of six chapters with an introduction and appendix. It begins with the complicated AH system in Korean language. It surveys the trend of the AH system in diachronic manner by examining the honorific of the second person pronoun (HSPP) and honorific verb ending (HVE) in Korean language. It suggests six HVE forms of P, Y, O, T, N, E according to the formality and deference degree from the highest to lowest. It also presents various kinds of HSPP in the same way to the HSPP. It states that the interlocutors are influenced by five elements such as age, relative status, gender, degree of familiarity and formality of situation, all of which are closely inter-related to each other.

This book introduces and reviews some theories of politeness scholars such as Brown, Gilman, Lakoff, Levinson and Leech, and suggests five elements of politeness evaluation which are crucial in selecting the AH: situation of the dialogue, social factors of the interlocutors, cultural expectations, the speaker's assumptions about the addressee and paralinguistic politeness. The next chapter surveys some translation theories such as literal translation, dynamic

equivalence, and skopos theory. This monograph supports the skopos theory by criticizing that the former theories are more or less neglecting the audiences' area in translation process, and that the skopos theory is the most suitable for the AH translation as it acknowledges the receptor's situations.

The following two chapters are dealing with the translation of Sanhedrin scene in Mark's gospel as a sample of applying the AH translation frame suggested above. It firstly critically surveys the history of translation of this passage in the Korean Bibles from Ross' *Corean New Testament* of 1887 to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of 2001. It then examines this passage very closely through the AH framework and suggests a new translation.